

2020년 1/4분기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19. 12

창원상공회의소

Contents

I. 조사개요	1
II. 요약	3
III. 2020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4
1. 2020년 1/4분기 창원경기 전망BSI	4
2. 2019년 4/4분기 창원경기 실적BSI	5
3. 항목별 전망	5
4. 업종별 전망	6
5. 규모 및 형태별 전망	7
6. 2020년 경제흐름 전망	8
7. 2020년 주요 대내·외리스크	8
8. 2020년 사업계획 방향	9
9. 2020년 신규채용 인원 계획	10
10. 정부에게 바라는 역점 경제정책	11
IV. 통계표	12

1. 조사목적

창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대상 : 236개 표본 제조기업

3. 분석대상 : 119개 응답 업체

4.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5. 조사기간 : 2019. 12. 3 ~ 12. 30

6. 조사내용

- 기업체감경기 현수준 및 향후 전망
- 체감실적 및 전망,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 기업경영환경 요인

7. 분석방법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응답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bullet \text{ 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 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 BSI 100 : 체감경기가 '호전'과 '악화'라고 응답한 업체수가 같음
-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가 '호전'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음
-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가 '악화'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8. 표본 응답업체 특성

•응답자 직급

구분	과장이상	과장미만	합계
응답업체 수	102	17	119
구성비율(%)	85.7%	14.3%	100.0%

•기업규모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응답업체 수	19	100	119
구성비율(%)	16.0%	84.0%	100.0%

•수출/내수

구분	수출중심기업 (수출 50% 이상)	내수중심기업 (수출 50% 미만)	합계
응답업체 수	24	95	119
구성비율(%)	20.2%	79.8%	100.0%

•제품형태

구분	부품 제조	완제품 제조	합계
응답업체 수	86	33	119
구성비율(%)	72.3%	27.7%	100.0%

•주요업종

구분	기계	운송장비	철강금속	전기전자	기타	합계
응답업체 수	24	40	19	23	13	119
구성비율(%)	20.2%	33.6%	16.0%	19.3%	10.9%	100.0%

- 2020년 1/4분기 창원기업 전망BSI는 '64.7', 4/4분기 실적BSI는 '44.5'

 - 전망BSI '64.7' 기록해 11분기 연속 기준치 하회하며 부정적 전망 지속
 - 내수침체 장기화, 미·중 무역분쟁,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 투자심리 위축 등 대내·외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의 요인에 기인
- 항목별) 창원 제조업체 매출 및 수익성 확보, 투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 전망

 - 전망BSI 매출액(80.7), 영업이익(72.3), 설비투자(81.5), 자금 조달여건(69.7)
- 업종별) 주요업종 부정적 전망지속

 - '기계'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불투명한 수주 전망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 전망 지속
 - '운송장비' 국내 자동차산업의 매출 부진, 세계 경기 및 교역 부진에 따른 조선업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기준치 하회
 - '전기전자' 경기둔화로 인한 고객사의 발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준치 하회
 - '철강금속'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부정적 전망
- 규모 및 형태별) '대기업', '내수중심기업' 1분기 경기 더 부정적 전망

 - '대기업' 52.6, '중소기업' 67.0, '내수중심기업' 60.0, '수출중심기업' 83.3
- 응답업체 51.3%, 2020년 경제흐름 2019년 대비 악화될 것

 - '악화' 47.1%, '올해와 비슷' 36.1%, '호전' 12.6%, '매우악화' 4.2%
- 2020년 주요 대내리스크 '내수침체 장기화', 대외리스크 '美中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꼽아

 - 대내리스크 '내수침체 장기화' 35.1%,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 30.6%, '투자심리 위축' 20.7%, '신산업·혁신을 가로막는 정부규제' 6.2%, '총선 등 정치이슈' 5.8%, '기타' 1.7% 순
 - 대외리스크 '美中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36.1%, '환율·금리 변동성 심화' 23.3%, '中 경제 성장세 둔화' 19.4%,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韓·日 갈등' 18.5%, '브렉시트' 1.8%, '기타' 0.9% 순
- 응답업체 52.9%, 2020년 신규채용 인원 '2019년과 비슷'할 것

 - '2019년과 비슷' 52.9%, '2019년보다 줄일 것' 38.7%, '2019년보다 늘릴 것' 8.4%
- 정부에게 바라는 역점 경제정책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꼽아

 -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60.5%, '수출·투자 모멘텀 회복' 21.8%, '파격적 규제개혁' 17.6% 순

Ⅲ

2020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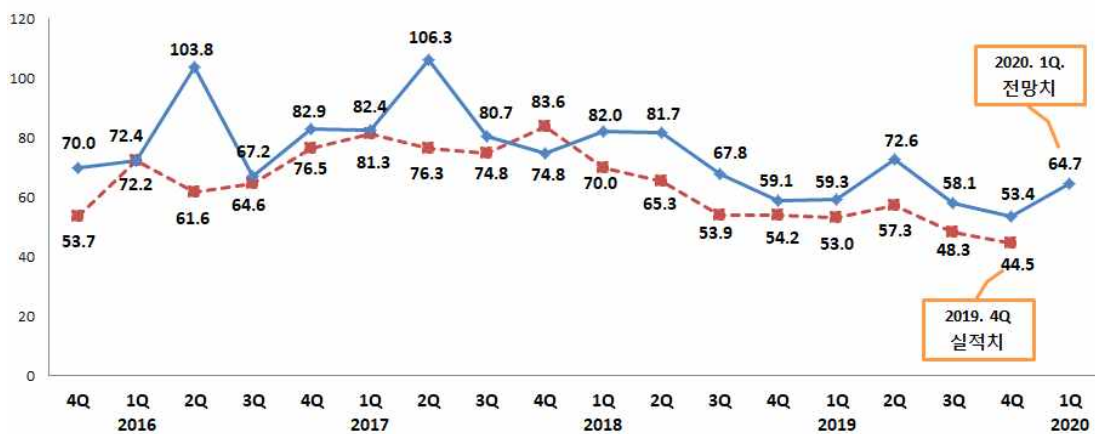
1. 2020년 1/4분기 창원경기 전망BSI

■ 2020년 1/4분기 창원경기 전망BSI '64.7'

'19 1Q	->	'19 2Q	->	'19 3Q	->	'19 4Q	->	'20 1Q
59.3		72.6		58.1		53.4		64.7

- 2020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전망BSI가 '64.7'를 기록하여 향후 경기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BSI는 11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해 창원지역 제조업체의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고 있음
- 이는 내수침체 장기화, 미·중 무역분쟁, 최저임금·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 투자심리 위축 등 대내외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창원지역 제조업 기업경기 전망 및 실적 추세 (2015. 4Q ~ 2020. 1Q)



2. 2019년 4/4분기 창원경기 실적BSI

■ 2019년 4/4분기 창원경기 실적BSI '44.5'

'18 4Q	->	'19 1Q	->	'19 2Q	->	'19 3Q	->	'19 4Q
54.2		53.0		57.3		48.3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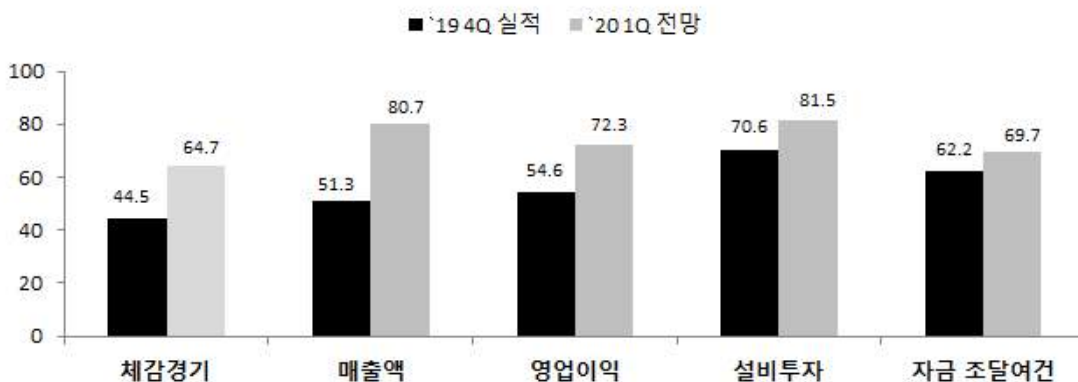
- 2019년 4분기 창원경기 실적BSI 조사결과 '44.5'를 기록하여 지난 분기 대비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3. 항목별 전망

■ 전항목 기준치(100) 하회하며 매출 및 수익성 확보, 투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 전망

- 매출액의 경우 80.7로 기준치를 밑돌아 2020년 1분기 매출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였음. 영업이익은 72.3, 설비투자는 81.5, 자금 조달여건은 69.7을 기록해 모든 항목에서 지난 분기보다 부정적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2019년 4분기 항목별 실적BSI도 모든 항목이 기준치(100)를 밑돌았음. 항목별로 매출액 51.3, 영업이익 54.6, 설비투자 70.6, 자금 조달여건 62.2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지난 분기보다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항목별 실적 및 전망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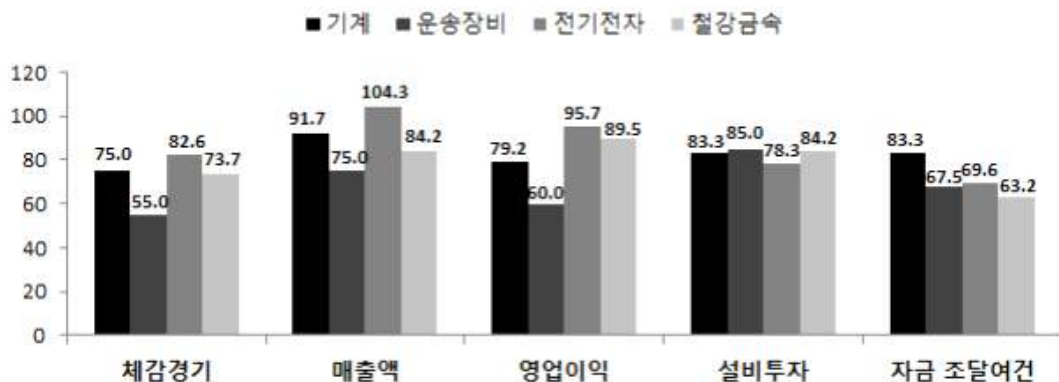


4. 업종별 전망

■ 주요 4개 업종 전망BSI 모두 기준치 하회하며 부정적 전망 지속

- '기계' 업종 전망BSI는 75.0으로 기준치를 하회했음. 항목별로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 조달여건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며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음. 이는 경기둔화 지속으로 인한 매출부진,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불투명한 수주 전망 등의 영향에 기인
- '운송장비' 업종 전망BSI는 55.0으로 기준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음. 주요업종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이 타 업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 이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매출 부진, 세계 경기 및 교역 부진에 따른 조선업 회복 지연 등의 요인에 기인
- '전기전자' 업종 전망BSI는 82.6으로 기준치를 하회했음. 항목별로 매출은 104.3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했으나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 조달여건은 기준치를 하회했음. 이는 경기둔화로 인한 고객사의 발주량 감소, 수출시장 악화 등의 요인에 기인
- '철강금속' 업종 전망BSI는 73.7로 기준치를 하회했음. 항목별로 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 조달여건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며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음. 이는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부정적 전망 지속 등의 요인에 기인

업종별 전망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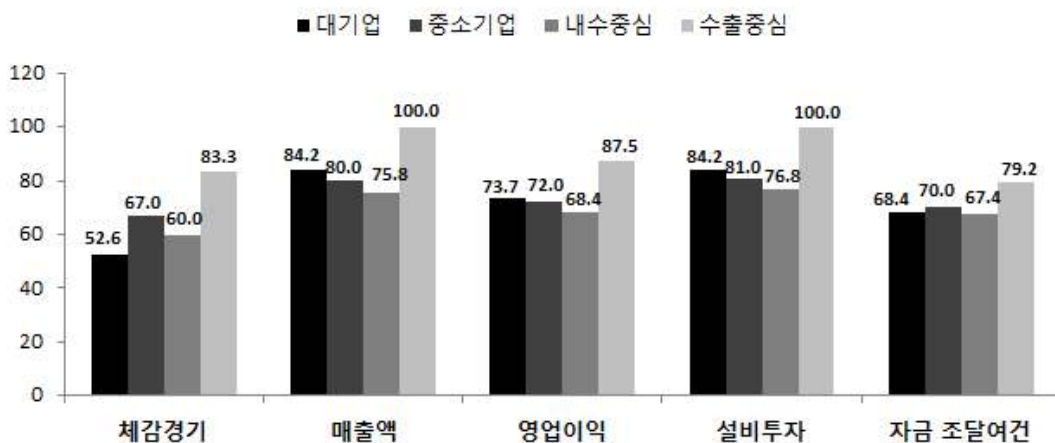


5. 규모 및 형태별 전망

▣ ‘대기업’, ‘내수중심 기업’ 1분기 경기 더 부정적으로 전망

- 업체 규모 및 유형별로 ‘대기업’, ‘중소기업’, ‘내수중심’, ‘수출중심’으로 구분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모든 항목에서 수출중심기업 보다는 내수중심 기업이 2020년 1분기를 더 부정적으로 전망했음.
- 규모별로 대기업 52.6, 중소기업 67.0으로 조사되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020년 1분기 경기를 더 부정적으로 전망했음. 형태별로 내수중심기업 60.0, 수출중심기업 83.3으로 조사되어 내수중심기업이 수출중심 기업보다 1분기 경기를 더 부정적으로 전망했음
- 2019년 4분기 실적BSI의 경우 규모별로 대기업 63.2, 중소기업 41.0으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높았음. 형태별로 내수중심기업 41.1, 수출중심기업 58.3으로 나타나 내수 중심기업의 실적악화가 두드러졌음

규모 및 형태별 전망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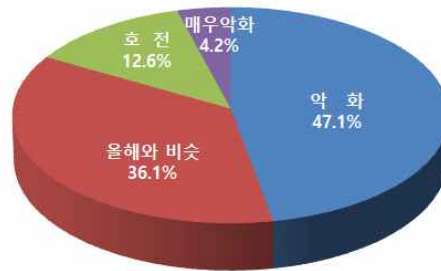


6. 2020년 경제흐름 전망

▣ 응답업체 51.3%, 2020년 경제흐름 2019년 대비 악화될 것

- 2019년 대비 2020년 경제흐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 119개사 중 56개사(47.1%)가 '악화'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올해와 비슷' 43개사(36.1%), '호전' 15개사(12.6%), '매우악화' 5개사(4.2%) 순으로 나타나 응답업체 51.3%가 '악화' 이상으로 응답했음

< 2020년 경제 흐름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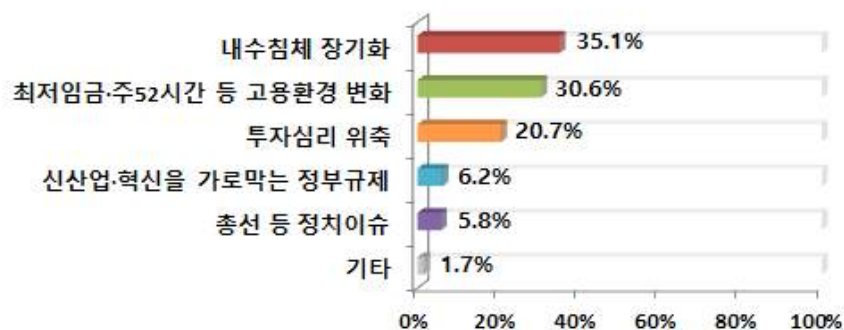


7. 2020년 주요 대내·외리스크

▣ 응답사 35.1%, 2020년 주요 대내리스크로 '내수침체 장기화' 꼽아

- 2020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리스크를 묻는 질문에는 총 응답수 242개(복수응답) 중 85개(35.1%)가 '내수침체 장기화'를 꼽아 가장 비중이 높았음. 다음으로 '최저임금·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 74개(30.6%), '투자심리 위축' 50개(20.7%), '신산업·혁신을 가로막는 정부규제' 15개(6.2%), '총선 등 정치이슈' 14개(5.8%), '기타' 4개(1.7%) 순으로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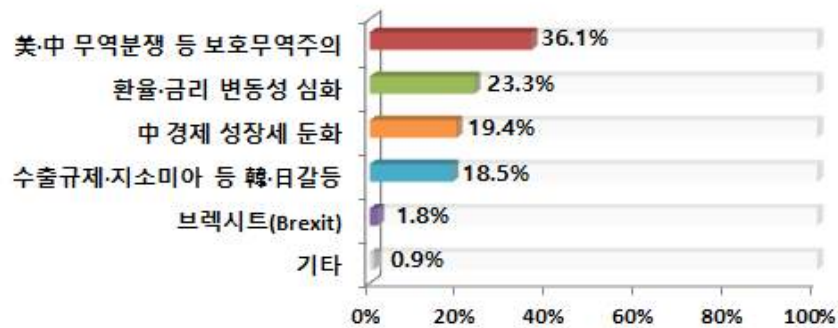
< 2020년 주요 대내리스크 >



□ 응답사 36.1%, 2020년 주요 대외리스크로 ‘美·中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꼽아

- 2020년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리스크를 묻는 질문에는 총 응답수 227개(복수응답) 중 82개(36.1%)가 '美·中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를 꼽아 가장 비중이 높았음. 다음으로 '환율·금리 변동성 심화' 53개(23.3%), '中 경제 성장세 둔화' 44개(19.4%),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韓·日 갈등' 42개(18.5%), '브렉시트(Brexit)' 4개(1.8%), '기타' 2개(0.9%) 순으로 응답했음

< 2020년 주요 대외리스크 >



8. 2020년 사업계획 방향

□ 응답사 81.5% ‘보수적’ 사업계획,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 경영’이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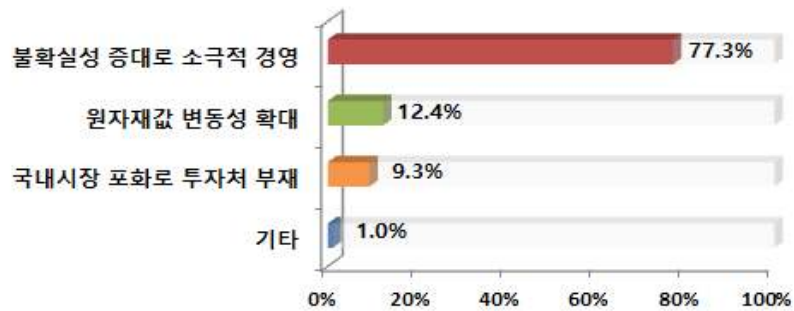
- 내년도 사업계획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총 응답업체 119개사 중 97개사(81.5%)가 ‘보수적’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공격적’ 22개사(18.5%)로 나타났음

< 2020년 사업계획 방향 >



-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업체 97개사 중 75개사(77.3%)가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 경영'을 꼽아 가장 비중이 높았음. 다음으로 '원자재값 변동성 확대' 12개사(12.4%), '국내시장 포화로 투자처 부재' 9개사(9.3%), '기타' 1개사(1.0%) 순으로 응답했음

< 2020년 사업계획 방향 '보수적' 응답 이유 >



9. 2020년 신규채용 인원 계획

▣ 응답사 52.9%, 2020년 신규채용 인원 '2019년과 비슷'할 것

- 2019과 비교해 2020년 신규채용 인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총 응답업체 119개사 중 63개사(52.9%)가 '2019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2019년보다 줄일 것' 46개사(38.7%), '2019년보다 늘릴 것' 10개사(8.4%) 순으로 나타났음

< 2020년 신규채용 인원 계획 >



10. 정부에게 바라는 역점 경제정책

-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뒤희할 경제정책으로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꼽아
 -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뒤희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총 응답업체 119개사 중 72개사(60.5%)가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고, '수출·투자 모멘텀 회복' 26개사(21.8%), '파격적 규제개혁' 21개사(17.6%) 순으로 나타났음

< 정부에게 바라는 역점 경제정책 >



IV**통계표****1.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2019 4/4분기 실적BSI	2020 1/4분기 전망BSI
체감경기	44.5	64.7
매출액	51.3	80.7
영업이익	54.6	72.3
설비투자	70.6	81.5
자금 조달여건	62.2	69.7

2. 기업유형별 BSI**1) 대기업 실적 및 전망 BSI**

	2019 4/4분기 실적BSI	2020 1/4분기 전망BSI
체감경기	63.2	52.6
매출액	68.4	84.2
영업이익	73.7	73.7
설비투자	78.9	84.2
자금 조달여건	89.5	68.4

2) 중소기업 실적 및 전망 BSI

	2019 4/4분기 실적BSI	2020 1/4분기 전망BSI
체감경기	41.0	67.0
매출액	48.0	80.0
영업이익	51.0	72.0
설비투자	69.0	81.0
자금 조달여건	57.0	70.0

3) 내수중심기업 실적 및 전망 BSI

	2019 4/4분기 실적BSI	2020 1/4분기 전망BSI
체감경기	41.1	60.0
매출액	44.2	75.8
영업이익	47.4	68.4
설비투자	62.1	76.8
자금 조달여건	54.7	67.4

4) 수출중심기업 실적 및 전망 BSI

	2019 4/4분기 실적BSI	2020 1/4분기 전망BSI
체감경기	58.3	83.3
매출액	79.2	100.0
영업이익	83.3	87.5
설비투자	104.2	100.0
자금 조달여건	91.7	79.2

3. 업종별 BSI

1) 기계업종 실적 및 전망 BSI

	2019 4/4분기 실적BSI	2020 1/4분기 전망BSI
체감경기	41.7	75.0
매출액	50.0	91.7
영업이익	50.0	79.2
설비투자	75.0	83.3
자금 조달여건	66.7	83.3

2) 운송장비업종 실적 및 전망 BSI

	2019 4/4분기 실적BSI	2020 1/4분기 전망BSI
체감경기	50.0	55.0
매출액	55.0	75.0
영업이익	57.5	60.0
설비투자	70.0	85.0
자금 조달여건	62.5	67.5

3) 철강금속업종 실적 및 전망 BSI

	2019 4/4분기 실적BSI	2020 1/4분기 전망BSI
체감경기	47.4	73.7
매출액	52.6	84.2
영업이익	57.9	89.5
설비투자	78.9	84.2
자금 조달여건	68.4	63.2

4) 전기전자업종 실적 및 전망 BSI

	2019 4/4분기 실적BSI	2020 1/4분기 전망BSI
체감경기	43.5	82.6
매출액	47.8	104.3
영업이익	52.2	95.7
설비투자	65.2	78.3
자금 조달여건	60.9	69.6